

##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Maximalism)

이 지 현 · 노 윤 선<sup>+</sup>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강사 · 동서대학교 디자인학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Maximalism Shown in the Works of Alexander McQueen

Lee, Ji Hyun · Roh, Youn Sun<sup>+</sup>

Instruct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seo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2. 5. 14, 심사(수정)일: 2012. 7. 26, 게재확정일: 2012. 7. 30)

#### ABSTRACT

Alexander McQueen is a typical designer of unconventional and experimental design who showed maximalism through outstanding tailor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that are expressed in modern fashion based on the works of Alexander McQueen, and to suggest boundless possibilities of development through his sense of design and the expressive ability of his works. Theoretical considerations will be made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precedent studies, and the collection data for case analysis will be used to select ready-to-wear women's collections from 2001 S/S to 2010 F/W by referring to internet sit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representative characteristic of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maximalism expressed in Alexander McQueen's works is expandability. Second, decorations used as a part of detail on clothes is used as decoration itself, and handcraft expression is shown through excessive use of decorations. The expandability of decoration that emphasizes splendid magnificence is expressed through flawless technique. Third, the fusion of each different image and the combination of ethnic image and modern image was most prevalent. Fourth, fantasy expresses a fictive image that could not be seen in reality by expressing an unrealistic and maximized image through the imagination of designer. Fifth, experimental element is expressed as an image that actively reflects the challenging spirit, which suggests a new direction of beauty through shocking and extraordinary images of the inner world of the designer and the root of new ideas about inhumane modern society.

Key words: Alexander McQueen(알렉산더 맥퀸), formative character(조형적 특성), maximalism(맥시멀리즘)

## I. 서론

현대 패션은 새로운 가치관과 미의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왜곡성·변형성·과장성 등의 요소를 혼합하여 복잡함을 매치시키는 방법으로 오늘날 미니멀리즘 패션과 대조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극단의 추구경향이다. 패션에서 과도함으로 표현되는 맥시멀리즘은 전위적인 조형성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보다 파격적인 것을 선호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차별화된 표현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많은 변화와 다양한 감성이 공존하는 오늘날의 패션계에 맥시멀리즘적 시도는 기발함과 독특함으로 무장하여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한다. 특히,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1969~2010)의 극적이고 예술가적인 작품세계는 천재성을 인정받아, 매 컬렉션 마다 호평을 받았으며, 그의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표현 방식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것으로 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경향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연구하는 것은 남과 다른 것, 나만의 것을 요구하는 현대 패션계의 흐름과 함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패션계의 반항아로 거침없는 아이디어와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창의성과 실력을 겸비한 디자이너였으며, 스스로 “나는 극단적인 것이 좋다”<sup>1)</sup>고 말할 정도로 비상한 아이디어와 상식을 뛰어넘는 표현력으로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계속하였다. 패션에 대한 자유로운 개념과 상상력을 실현으로 옮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디자이너인 만큼 그의 컬렉션에서 과도함과 극단을 추구하는 맥시멀리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방가르드와 해체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sup>2)</sup>, 하이브리드 경향의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sup>3)</sup>, 그로테스크적 특성에 관한 연구<sup>4)</sup>가 이루어졌을 뿐 맥시멀리즘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션에 기술과 문화를 접목시키고 도전적인 작품세계를 선보인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연구하여 파격

적이고 시각적인 자극만을 요구하는 패션계에 일침을 가하며, 알렉산더 맥퀸 사후에 그의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패션계에 그가 남긴 업적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 배경과 철학을 파악하였다. 사례 분석을 위한 컬렉션 자료는 패션 전문 인터넷사이트(www.style.com)를 참고 하였다. 작품 분석을 위한 연구 범위는 알렉산더 맥퀸이 생존해 직접 작품에 참여한 최근 10년 동안의 2001년 S/S- 2010년 F/W까지의 READY-TO-WEAR 여성컬렉션 작품을 대상으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무한한 표현영역을 확인하고 기존의 경향을 탈피한 형식의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하여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패션계에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맥시멀리즘

### 1.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형성 배경

맥시멀리즘은 ‘최대주의, 극대주의’ 등의 뜻을 지닌 단어로 장식적이며 과장된 형태의 문화예술적 경향<sup>5)</sup>으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 맥시멀리즘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 사회·문화·경제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거론될 수 있으며, 다문화주의·국제화시대를 넘어서는 거대 이념이기도 하다. ‘최대한의’라는 뜻으로 대신 할 수 있는 용어는 문학과 예술분야에서 그 맥락을 이해할 수 있으며 문학에서의 맥시멀리즘의 이해는 다른 분야의 맥시멀리즘적 개념의 토대가 되므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맥시멀리즘 유형의 소설은 문학과 예술, 역사, 종교 등 거의 모든 지식의 학문분야를 취급하는 것으로 상당히 길이가 길고 규모가 크며, 몇 백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되어 있다.<sup>6)</sup> 백과사전식의 지식을 담고 있는 소설은 상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확대 지향적 성격을 지녀 3백여 명에 달할 정도로 등장인

물이 많고, 인물의 성격형성도 복잡 미묘하게 이루어진다.<sup>7)</sup> 언어적 측면을 볼 때도 맥시멀리즘은 바로크 시대의 건축 양식을 연상하게 할 만큼 장식적이고 수식적인 스타일을 즐겨 사용하며 고양된 표현이나 길이가 길고 난해한 문장이 강조된다.<sup>8)</sup>

회화에서는 사각의 캔버스 틀 안의 공간이 아닌 실제하는 공간에서 존재하는 작품을 제시하며 초대형 회화의 캔버스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연방미술정책이 미술을 공동체의 일상생활과 총합시키기 위해 결성<sup>9)</sup>된 것으로 멕시코의 리베라(Rivera Diago) 등이 추진한 공공작업을 통한 대형 벽화작업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규모와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완성됨으로써 거대 이미지로 표현되거나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작품들로 표현형식의 틀을 깨뜨리고 시각과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이러한 사고의 확장은 절제되고 단순화된 모습에서 자유로운 예술 활동의 표현이나 장르의 구애를 넘어서며 새롭고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받아드리며 탈장르적으로 나타나 예술적 경계를 허물고 제한 없는 사고로 보다 풍요롭고 다채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건축에서는 최대, 최고주의를 지향하며 초고층을 내세우며 화려함과 극단적인 장식으로 거대한 건축물들이 나타났는데 지난 1931년 미국 뉴욕의 '엠페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sup>10)</sup>' 빌딩을 필두로 100층을 넘는 초고층 건물의 건설 열기가 세계 곳곳에서 유행처럼 확산되어 왔다. 이는 기술력과 그 건축물이 존재하는 국가의 권위를 과시하는 현상으로도 나타나, '세계 최대 규모', '세계 최대 높이'를 내세우며 현재까지도 전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고층화와 거대 규모의 건축물들은 규모와 높이를 시작으로 하여 건물 외형과 내부의 재료, 건축 방법에서까지 복잡한 장식과 복합 재료를 사용하여 과장된 장식에서 오는 화려함을 부각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맥시멀리즘은 90년대를 대표하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에 반하는 것으로 극도로 단순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에 싫증이 난 디자이너들이 과장되고 극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현대화로 인한 개인집중현상으로 개인

의 특성을 중시여기고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창의력이 곧 경쟁력이 됨에 따라 기상천외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다양한 디자인의 개발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과감한 자기표현 경향은 차분하고 정돈된 이미지의 미니멀리즘 일색의 패션계에 신선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맥시멀리즘 패션의 형성 배경이 되었다.

## 2.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

확대지향적인 맥시멀리즘은 다양한 형태, 소재, 색상, 디테일 및 트리밍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용적이고 절제된 의상에 싫증을 느낀 패션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창의력을 표현하는 도구로써 표현되고 있다. '최대한의', '극대의'란 뜻에 걸맞게 형태적으로 과장되고 극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소재들의 결합, 수공예적이고 장식적인 소재와 화려한 색상들의 조합, 과장된 디테일과 트리밍은 대표적인 조형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에 대하여 권정숙<sup>11)</sup>은 과장과 집중, 왜곡과 변형, 이접과 혼재로 각 특징을 나누며, 조형요소인 형태는 요소들의 규모나 수량의 과장과 확대, 형태 변형을 통하여 표현된다고 하였으며, 소재와 색상은 재료의 종류, 재질표현과 가공 및 문양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디테일 및 트리밍은 맥시멀리즘의 화려함과 다양한 장식 취향에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고 하였다.

김현진, 김혜경<sup>12)</sup>은 맥시멀리즘의 특징을 메이크업 디자인으로 분석하면서 확대함·육중함·과도함의 추구경향을 과장성, 화려함·파격성·독특함 등의 특징을 장식성,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탈피성·유희성 등의 특징을 실험성으로 분류하여 조형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김현진, 이은숙<sup>13)</sup>은 맥시멀리즘적 패션 디자인의 표현성으로 육중함·풍만함·과도함을 포함하는 경향을 확대 과장성, 길이·넓이·부피의 착시효과에 초점을 두며 의복의 구조선·기능성·실용성과는 상관이 없는 장식선에 의한 표현을 장식성, 겹쳐 입은 듯 한 느낌·서로 이질적인 작품의 혼합이 주는 이미지를 혼합성, 좌우의 무게를 다르게 처

리하거나 구조적 디자인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둔 비구조성으로 분류하였다.

문지애<sup>14)</sup>는 현대 머리장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표현기법을 물리적 힘을 가해 특정 물체의 기본 형태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변형과 변용, 형태를 중첩시키거나 그 형태 자체를 과장되게 표현하는 중첩과 과장, 여러 요소를 혼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전혀 다른 느낌의 부적합한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혼성과 편집으로 나누었다. 박은경<sup>15)</sup>은 과거지향에 미래지향의 결합 같은 시대들의 혼합, 동·서양과 에스닉 등의 스타일 혼합 등을 퓨전성, 과장된 실루엣과 거대조형, 다양한 패턴과 여러 색상·소재들의 극도로 복잡한 매치를 통한 과장으로 나타난 확대성, 과도한 과잉장식의 키치적이거나 수공예적인 고가의 럭셔리한 장식추구로 나타나는 장식성, 실용성보다는 동화적 가능성과 초현실적인 이미지의 환상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변혜진<sup>16)</sup>은 맥시멀리즘적 복식을 맥시멀 룩(maximal look)이라 정의하며, 맥시멀 룩의 조형미란 과장된 장식과 화려함을 추구함으로써 주관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재형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조형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수공예적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식주의적 조형미, 실용적인 복식의 탈피로 독창적이며 개성적인 복식 이미지를 전위주의적 조형미, 기존질서나 양식·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진 것을 의미하는 다원주의적 조형미,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실루엣이나 복식요소들을 과장시킨 유희적 조형미로 그 의미를 나누고 있다. 이효진<sup>17)</sup>은 맥시멀리즘의 유형을 로맨틱 히피룩과 로맨틱 스포츠 룩으로 분류하며, 로맨틱 히피룩에서는 이국적인 패턴과 아이템, 디테일을 응용하여 독특한 이국의 정서와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표현한 다문화주의 조형성, 물·바람·꽃 등의 이미지를 로맨틱한 감각으로 표현한 자연주의적 조형성으로 나누었으며, 로맨틱 스포츠 룩에서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의 공존을 통하여 고정관념을 깨고 스포츠 룩에 로맨틱한 요소를 공유하여 전통적 기능성이 해체된 다기능적 조형성, 상반되는 것끼리의 혼합이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하

는 것을 크로스오버 조형성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을 연구한 이희정<sup>18)</sup>에 따르면 맥시멀리즘의 조형성은 소재의 다양화와 로맨틱한 문양, 디테일의 확대와 수공예적인 기법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이를 형태의 극대화, 장식의 과장화, 색채의 다양화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이 밝히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성을 토대로 중첩과 과장·왜곡과 변형·확대·과장성 등을 포함하는 특성은 확대성으로, 장식주의적 조형미·장식의 과장화 등에 포함되는 특성은 장식성으로 명명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혼합성·다원주의적 조형미 등을 포함하는 특성은 퓨전성으로 분류하고, 유희적 조형미·자연주의적 조형성 등을 포함하는 특성은 환상성으로 정하여 살펴본다. 이점과 혼재·비구조성·전위주의적 조형미 등에 포함되는 특성은 실험성으로 정의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1) 확대성

복식에서의 확대성은 신체의 윤곽에 비하여 복식이 크게 확장된 것으로,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하게 되고 길이가 신장된 양적의미의 확대를 일컫는 말이다.<sup>19)</sup> 복식의 확대는 실루엣의 확대와 디테일을 구성하는 요소, 즉 칼라·소매·헴 라인 등의 부분 확대로 나눌 수 있는데, 실루엣을 확대하는 것은 형태 자체를 극대화하여 나타내는 것이고, 부분적 확대는 각 요소의 형태가 과장되거나 길이가 신장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부분적 확대는 한 요소를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탈정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성광숙<sup>20)</sup>에 따르면 현대 패션의 확대현상은 “인체에 비해 크고 지나침이 확연히 구분되는 팽대복으로, 입체적으로 형태와 부피가 돌출 팽창되고 길이가 신장된 양적의미의 확대”라는 개념의 정의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복식확대 경향을 설명하였다. 이는 복식의 확대현상이 단순히 양적인 확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표 1〉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

연구자	조형적 특성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표현방법
권정숙 (2008)	과장과 집중	형태나 부피를 확대하거나 장식, 특징적인 소재 및 색상 등의 요소를 강조
	왜곡과 변형	형태나 모양을 바꾸거나 실제와 다르게 변형함
	이접과 혼재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모아 결합시켜 기존의 요소들을 전혀 다른 의미의 요소로 재조합
김현진 김혜경 (2011)	과장성	확대함, 육중함, 과도함의 추구경향
	장식성	화려함, 파괴성, 독특함, 호화스러움, 부조화의 추구경향
	실험성	표현의 자유·탈피성·유희성·의외성 등의 추구경향
김현진 이은숙 (2011)	확대 과장성	육중함, 풍만함, 과도함의 추구경향
	장식성	착시효과에 초점을 두며 의복의 구조선, 기능성, 실용성과는 상관이 없는 장식선에 의한 표현
	혼합성	겉치 입은 듯 한 느낌, 서로 이질적인 작품의 혼합이 주는 이미지
문지애 (2011)	비구조성	좌우의 무게를 다르게 하거나 구조적인 디자인을 비대칭적으로 나타냄
	변형과 변용	물리적인 힘을 가해 특정 물체를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킴
	중첩과 과장	형태를 중첩시키거나 형태 자체를 과장되게 표현
박은경 (2006)	혼성과 편집	여러 요소를 혼합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거나 전혀 다른 느낌의 부적합한 것들을 하나로 결합
	퓨전성	시대들의 혼합, 스타일 혼합,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 혼합,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
	확대성	과장된 실루엣과 거대조형, 다양한 패턴과 여러 색상, 소재들의 극도로 복잡한 매치를 통한 과장
변혜진 (2006)	장식성의 키치적이거나 수공예적인 고가의 럭셔리한 장식추구	장식주의적 조형미
	과잉장식의 키치적이거나 수공예적인 고가의 럭셔리한 장식추구	전위주의적 조형미
	실용성보다는 동화적 가능성과 초현실적인 이미지 표현	다원주의적 조형미
이효진 (2003)	과도한 장식과 화려한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감성과 수공예적인 디자인 추구	유회적 조형미
	모던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실험적이고 비논리, 비이성, 무형식의 극단적인 표현양식	로맨틱 히피 룩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성을 부각하여 이미지 절충	다문화주의 조형성
	신체의 형태를 무시하고 실루엣이나 복식요소들을 과장	자연주의적 조형성
이희정 (2008)	이국적인 패턴과 아이템, 디테일을 응용하여 독특한 이국의 정서와 보헤미안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표면화됨	로맨틱 스포츠 룩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것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음	다기능적 조형성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들의 공존을 통한 엉뚱한 요소와의 화려한 결합	크로스오버 조형성
탈 이분법적인 특성으로 상반되는 것끼리의 혼합으로 새로운 즐거움을 부여	형태의 극대화	과대표현적 스타일
장식의 과장화	수공예적인 표현의 아름다움을 추구	장식의 과장화
화려한 색채의 사용	색채의 다양화	색채의 다양화

전달하고 인간의 미적의지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전형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확대성의 미는 다양한 미의 범주를 인정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으며, 수많은 미의 범주에서 그 속에 내재된 독창적인 개성을 드러내며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를 선사하며 일탈의 미를 보여주고 있다. 맥시멀리즘 패션의 확대성은 실루엣 전체의 확대와 부분의 확대, 소재는 부피감과 거대한 조

형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드·벌키한 소재, 단색이거나 화려한 색채, 디테일은 오히려 단순하게 나타난 형태로 확대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2) 장식성

장식성은 복식사적으로도 오래전부터 나타난 인간 본연의 기본적인 욕구로 인간은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고 더 나은 모습을 위하여 장식하고 싶어 하는

장식추구경향을 보여 왔다. 변혜진<sup>21)</sup>에 의하면 인간은 장식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의복에서의 장식은 복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의복에 장식적인 디자인이 첨가되면 의복 전체에 독창적인 면을 보완해줄 뿐만 아니라 미적표현을 더해 의복의 가치와 개성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장식은 의복을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특히 맥시멀리즘에 있어서의 장식성은 단순한 장식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극도로 과장된 치장이나 섬세한 장식, 수공예적 이미지, 과도함을 넘어선 화려함 등을 창조하는 수단으로 표현되고 있다.

맥시멀리즘 패션의 장식적 경향은 오프 쿠튀르를 지향하며 수공예적이고 고가의 재료를 이용한 과다 장식으로 섬세한 기술과 감각을 필요로 한다. 이는 극단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장인정신에 의한 과거로의 회귀지향적인 모습을 풍부한 감성과 고급스러움으로 표현하여 차원이 다른 개념의 장식으로 의복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맥시멀리즘 패션의 장식성은 장식을 강조하기 위한 심플한 형태의 실루엣, 다양한 문양과 추상적인 형태의 프린트, 자수·비즈·크리스털·인조 보석을 이용한 수공예적 작업에 의한 다양한 소재, 화려하고 복잡한 색채, 키치적·로맨틱한 과잉장식 디테일로 표현되고 있다.

### 3) 퓨전성

퓨전은 라틴어의 'fuse(섞다)'에서 유래한 말로, 어원적으로는 '이질적인 것들의 뒤섞임, 조합, 조화'를 뜻한다. 퓨전은 예술의 각 장르들이 기존의 자신의 고유함을 해체하고 다른 것과 합쳐지면서 대안을 모색하는 예술의 한 경향이다.<sup>22)</sup> 따라서 맥시멀리즘 패션의 퓨전성은 과거지향에 미래지향의 결합 같은 시대들의 혼합, 동·서양과 에스닉 등의 스타일 혼합, 다양한 색상 및 패턴과 디테일의 혼합, 여러 이질적인 소재의 매치 등이 극도로 복잡하게 섞여 표현<sup>23)</sup> 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대 패션계에서 다문화와 국제화에 걸맞은 패션표현의 영역으로 자리 잡아, 한 맥락으로 나오는 디자인보다 경쟁력이 있고 시대에

구에 부응하는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믹스 앤 매치를 통하여 기존에 볼 수 없던 이미지가 탄생되고 틀을 깨 아이디어로 인하여 새로운 미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퓨전성은 스타일의 혼합·시대들의 혼합 등 다양한 이미지의 조합으로 인한 복잡 다양한 형태·소재·색채·다양한 디테일들의 조합으로 기존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여 선보이고 있다.

### 4) 환상성

환상적 이미지는 현실세계에서 경험할 수 없는 상상이나 꿈에서나 볼 수 있는 초현실적 형상이 시각화되어 표현된 것이다. 이렇듯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력, 허구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은 기존 개념들의 제약을 넘어 자유로운 사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맥시멀리즘적 패션에 표현되는 환상성은 초현실적이고 유희적인 표현을 통하여 신선한 자극과 환상을 제공하며, 일탈을 꿈꾸는 현대인에게 자유로운 상상력과 시·공간을 초월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새로운 창작영역과 무한한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공한다.<sup>24)</sup> 환상성을 가미한 복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동심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며, 일상을 벗어나 잠재되어있던 감각을 일깨워주기도 하며, 때로는 미래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환상성은 의복을 디자인한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작품을 감상하는 자에게까지 사고의 영역을 넓혀 상상력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무한한 판타지를 제공한다.

맥시멀리즘 패션에서 환상성은 기존의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현실적 형태, 기존 패브릭으로는 보기 힘든 독특한 소재나 시스루 소재, 판타지를 가능하게 하는 화려하거나 몽환적인 색채, 다양한 일상사물의 모티브나 동물의 형상 등의 디테일 표현으로 나타난다.

### 5) 실험성

실험성은 기존 상식의 틀을 벗어난 무제한적 표현의 자유, 탈피성, 기괴함, 의외성의 추구경향이 강한 특징과 함께 다양한 이미지 실현을 위한 비정상적인 불균형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말한다.<sup>25)</sup> 이

는 보편적인 미를 벗어난 것으로 미와 추, 빈과 부, 전통과 현대, 남성과 여성, 동양과 서양 등 다양한 요소들 간의 혼성 및 절충으로 표현되며, 예술과 문화,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그 영역을 벗어나 각 요소들 간의 부조화 속의 조화로 표현되고, 소재와 구성 및 기법에 있어서도 기존 패션관념에서의 일탈을 제시하고 있다.<sup>26)</sup> 이는 새로운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영역을 확인시켜주며 끊임없는 새로운 시도를 통하여 기존에 볼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영역을 제시하여 신선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방법들은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의 것을 독창적인 사고로 전환하여 서로 안 어울릴 것 같은 요소의 결합이나 부조화적 이미지를 통하여 불안정한 상태에서의 자극적인 상황들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제시한다. 이러한 실험성은 파격적인 오브제를 도입한 다양한 형태, 의상의 소재로는 부적절한 다양한 이질적 소재, 어둡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내는 색채, 자극적인 다양한 디테일로 나타나고 있다.

### 3. 맥시멀리즘 패션의 내적 특성

각자의 개성과 기호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 자유로운 감성으로 구애받지 않고 창의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도구인 맥시멀리즘적 표현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이 된다. 또한 '최초의', '하나 뿐인' 등의 수식어에 열광하는 오늘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맥시멀리즘 패션은 외적으로는 '극대'를 추구하면서 내면으로는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넘어 과장되고 극대화된 패션 이미지를 갈망하며 각박한 현실세계에서의 도피를 꿈꾼다. 또 기계화와 최첨단 기술 속에서 그저 실용적이면서도 작고 가벼운 것을 선호했던 절제된 모습에서 맥시멀리즘 패션을 통하여 내재되어있는 자유를 향한 의지와 열린 사고의 실체를 통하여 내면의 억압되어 있는 것들을 떨쳐내고 자유로운 표현의 이미지를 통하여 현실을 벗어나고자하는 또 다른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며 치유 받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작고 소외되고 독립적인 현대의 생활공간에서 확대된 이미지를 통해 자아를 대입

시켜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무언의 표출이기도 하다. 무한한 상상력을 통하여 표현되는 환상적인 이미지는 현실세계를 탈피하고자 하는 내면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도피처와 같이 부정하고 싶은 현실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누구나 세속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현대 사회에 맥시멀리즘적 패션은 유일한 시각적 안식처로 보는 이의 마음에 마치 치유를 하듯 무언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대리만족을 통한 자아확대로 만족감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이성과 합리를 중요시하고 단순성과 순수성의 절제를 추구하는 미니멀리즘적 사고에서 벗어나 패션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동시에 여러 문화를 넘나들며 감성과 감각, 화려함, 자극, 즐거움, 새로움을 최대한으로 추구함으로써 현재 삶 속에서의 세속적인 것의 자유로운 향유를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7)</sup>

## Ⅲ.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

### 1. 알렉산더 맥퀸의 디자인 특성

알렉산더 맥퀸은 '올해의 영국 디자이너'를 4차례나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우뚝 섰다. 그는 특유의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인정받으며 예술적으로나 상업적인 면에서 성공적인 입지를 다지며 천재 디자이너, 앙팡 테리블로 불리며 패션계의 유일무이한 존재로 평가받았다. 그는 창의적인 디자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이고 정확한 재단기술과 파격적인 퍼포먼스로<sup>28)</sup> 독보적인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1994년 복지 기금의 후원을 받아 데뷔 쇼를 가졌고 단지 7회의 컬렉션을 선보인 상태에서 1996년 10월 지방시의<sup>29)</sup> 수석 디자이너가 되었다.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과 정교한 테일러링은 그를 성공한 디자이너로 만들었고, 그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는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어우러져 패션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그의 컬렉션은 언제나 대담하고 진보적이었으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테마를 작품으로 선보여 의상뿐만 아니라 패션쇼 연출까지도 아이디어의 연장으로 시각화 하여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의 컬렉션은 노예, 교통사고, 기아 등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스스로 “나는 관객들이 쇼를 보다 못해 밖으로 뛰쳐나가 토하기를 바란다. 나는 극단적인 것이 좋다”<sup>30)</sup>라고 말할 정도로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나타나는 패션쇼 주제에는 영국인이라는 자부심에서 오는 영국 역사와 전통에 대한 소신, 자연에 대한 관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탄탄한 기술력과 기발하고 대담한 무대연출로 패션쇼 자체를 아이디어화하여 매년 파격적인 패션쇼를 발표한 알렉산더 맥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보다는 항상 새로운 사고로 기발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시대를 앞서가는 감각으로 그것이 결코 보편적인 미의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실험적인 작품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고정관념을 부정하며 늘 새롭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하며, 극단의 아이디어를 패션으로 표현하였다. 그의 작품들은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패션계에 새로움을 부여하며 기존의 미의 개념을 넘어선 이미지로 기존 이미지와 통념의 미를 부정하며 사후에도 후속 디자이너들에게 무한한 영감의 원천을 제공하고 있다.

## 2.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성

앞서 밝힌 맥시멀리즘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토대로 확대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실험성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확대성

알렉산더 맥퀸은 평범함을 거부하며 어떤 디자인이라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능력의 소유자로 인정받았다. 대중적인 테마도 그만의 새로운 시각으로 재탄생되었고, 기발한 상상력은 뛰어난 기술로 완벽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예술적 감각은 단순히 의복을 위한 디자인이라기보다 어떤 주제에 대하여 자신만의 감성을 발휘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져 기존의 미와는 차별화된 미의 영역을 제시한다.

특히 알렉산더 맥퀸은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예술적 감각을 발휘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표현하는 시도를 즐겨하였다. 그것은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확대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실루엣을 과장시키는 방법, 디테일을 확대하는 방법, 평범한 디자인의 의상에 확대된 액세서리를 매치하는 방법으로 거대한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또한 그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이미지에 의한 발상을 중심으로 표현되었으며, 자연 조형과 민족성에 의한 디자인 발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실현하였다. 2003년 F/W 컬렉션은 마치 눈 덮인 황량한 툰드라 지역처럼



〈그림 1〉 확대성  
Alexander McQueen  
2003 F/W  
- <http://www.style.com>



〈그림 2〉 확대성  
Alexander McQueen  
2007 S/S  
- <http://www.style.com>



〈그림 3〉 확대성  
Alexander McQueen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4〉 확대성  
Alexander McQueen  
2003 S/S  
- <http://www.style.com>



럼 무대를 꾸며놓고 유리로 된 거대한 다리를 만들어 바람이 나오는 터널을 연출하였다. 피날레 작품인 <그림 1><sup>31)</sup>은 무려 20피트나 되는 거대한 기모노형태의 코트로 모델이 워킹을 할 때 바람터널에서 거대한 눈보라가 불어 모델은 마치 슬로우 모션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바람을 가리며 등장하였다. 이 의상은 확대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눈보라 연출과 함께 극대화된 형태가 더욱 강조되면서 신비로움과 무제한적 표현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는 의상 자체 뿐만 아니라 움직임까지 시각적인 창조역할을 하고 보여지는 모든 면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림 2><sup>32)</sup>는 신체의 왜곡된 형태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힙라인과 어깨라인을 딱딱하게 고정시킨 아워글라스 실루엣으로 네크라인과 소매부분을 꽃으로 장식하여 여성미를 극도로 부각시킨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인체를 과장되게 표현하여 인체의 일반적인 곡선을 이탈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다. <그림 3><sup>33)</sup>은 마치 기모노를 변형한 듯한 스타일의 어깨와 허리를 강조한 드레스로 소매의 길이를 길게 확대하여 맥시멀리즘적 우아미를 표현하였다. <그림 4><sup>34)</sup>는 거대한 깃털로 된 헤어장신구가 화려한 색채의 쉬폰 드레스에 매치되어 마치 한 마리의 새를 보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평범한 의상에 과장된 액세서리를 장식하여 확대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확대성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형태를 극도로 과장하여 나타났으며, 소재는 형태의 조형미

를 나타내기 위한 하드한 소재, 소재 자체로 부피감을 느낄 수 있는 퍼 소재로 나타났다. 색채는 단색 또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디테일은 자수나 꽃의 모티프를 이용하여 표현되었다. 패션쇼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쇼맨십을 적극 발휘하여 의상뿐만 아니라 무대 구성, 모델들의 연기, 퍼포먼스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과정으로 녹아들어 그 자체가 맥퀸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결과물뿐만 아니라 움직임마저도 창조역할을 하고 의상과 의상 이외의 보여지는 모든 것에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과장과 확장은 디자이너의 의도를 증폭시키고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장식성

알렉산더 맥퀸은 특유의 수공예적인 기술과 완벽에 가까운 테일러링으로 기존의 아름다움의 개념을 엄숙하고 장엄하게까지 표현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수공예적인 자수기법을 사용한다던가 의복의 한 디테일을 장식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과도한 글리터링 장식으로도 표현되기도 한다. 그는 꾸뛰르 출신 디자이너로, 뛰어난 테크닉과 정교하고 고급스러운 소재개발로 실험적이고 과격적인 것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완성도로 고급스러움의 절정을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자연과 민속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인한 자연 조형



<그림 5> 장식성  
Alexander McQueen  
2010 S/S  
- <http://www.style.com>



<그림 6> 장식성  
Alexander McQueen  
2010 F/W  
- <http://www.style.com>



<그림 7> 장식성  
Alexander McQueen  
2003 S/S  
- <http://www.style.com>



<그림 8> 장식성  
Alexander McQueen  
2002 S/S  
- <http://www.style.com>

과 민속성에 의한 디자인 발상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전개하였다. <그림 5><sup>35)</sup>는 드레스, 팬츠, 슈즈까지 수천만 개의 글리터링한 시퀀(sequin)들이 마치 각각류 표면의 결처럼 촘촘하게 붙어있는 작품으로 팬츠는 스팅글과 시퀀들이 파충류의 표면처럼 장식되었다. 의상과 슈즈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게 장식이 되어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눈이 부실정도로 과도한 장식은 기존의 화려한 의상과는 차원이 다른 극에 달한 장식성으로 연출되었다. <그림 6><sup>36)</sup>은 2010년 F/W 작품으로 알렉산더 맥퀸의 마지막이 된 컬렉션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기전 80% 완성되었던 작품들이 그의 팀에 의하여 완성되어져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레드컬러 드레스에 수공예적 기술로 화려하고 섬세하게 장식된 금속 장식들이 전체에 빼곡하게 장식되어있고 드레스 하단부분에는 중세시대의 유럽을 재해석한 이미지의 거대한 금박이 장식되어 중세 비잔틴 시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듯하다. 수백 겹의 러플들로 장식된 <그림 7><sup>37)</sup>은 허리선부터 레드, 옐로, 그린, 블루, 퍼플, 핑크로 마치 물들어진듯하게 화려한 색채들로 구성된 롱 드레스로 원피스의 표면을 장식하는 직물이 과도한 러플로 장식이 되어 중첩의 이미지와 다채로운 컬러에 의한 화려한 색채를 표현하였다. 이는 과장된 색조와 러플에 의한 맥시멀리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8><sup>38)</sup>은 거대한 러플들이 스커트 햄라인에 수평적으로 장식되어져 위트 있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과장된 디테일을

반복적인 나열을 통하여 장식의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중첩에 의한 강조를 나타내고 있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적 장식성은 형태에서는 장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심플한 실루엣의 의상들이 주로 선보였으며, 형태적 장식미를 위한 두께감 있는 소재, 로맨틱한 톨 소재, 글리터링한 시퀀 장식,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 고급스럽고 정교한 수공예적인 기술을 요하는 크고 작은 러플과 수많은 금박 디테일 장식을 선보여 장식의 극치와 꾸뛰르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치스럽고 로맨틱한 장식, 많은 시간이 투자된 수공예적 장식은 꾸뛰르에 대한 존중의 표현으로 나타났다.

### 3) 퓨전성

알렉산더 맥퀸은 과격적이고 충격적인 컬렉션으로 다양한 주제의 작품을 발표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본에 충실한 전통에 대한 존중이 있다. 이는 유럽의 고전복식·아시아·아프리카 등의 복식요소, 소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엿볼 수 있으며, 전통적인 것을 유지하면서도 그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재해석하여 수많은 작품을 발표하였다. 방대한 복식사적 지식과 뛰어난 기술의 조합으로 과거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작품이 탄생했으며, 이는 곧 퓨전성으로 나타나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적절히 배치하며 그만의 공존을 만들어 나갔다. 현재와 과거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탄생시킨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알렉산더 맥퀸 컬렉션에서 빠지지 않는



<그림 9> 퓨전성  
Alexander McQueen  
2008 F/W  
- <http://www.style.com>



<그림 10> 퓨전성  
Alexander McQueen  
2001 F/W  
- <http://www.style.com>



<그림 11> 퓨전성  
Alexander McQueen  
2003 F/W  
- <http://www.style.com>



<그림 12> 퓨전성  
Alexander McQueen  
2009 F/W  
- <http://www.style.com>

테마로 나타났다. <그림 9><sup>39)</sup>는 2008년 F/W 작품으로 인도풍의 보석 머리장식, 영국 빅토리아 여왕시대 복식을 연상시키는 레드 벨벳 재킷에 로맨틱한 요소를 더한 프릴장식, 툴 스커트와 인도풍의 슈즈로 시대적인 요소들 간의 퓨전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sup>40)</sup>은 매니쉬한 스타일의 코트와 팬츠에 오리엔탈풍의 자수가 들어간 원단이 덧붙여진 형식의 의상으로 매니쉬한 무드에 오리엔탈적인 스타일의 접목으로 퓨전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 11><sup>41)</sup>은 일본풍의 맥시멀리즘적 모자와 기모노에서 변형한 듯한 레드 컬러의 꽃무늬 자수가 놓아진 재킷에 현대적인 화이트 팬츠를 매치하여 오리엔탈리즘과 현대의 퓨전을 보인다. <그림 12><sup>42)</sup>는 우아한 머메이드라인의 꾸뛰르풍 드레스에 인체 라인에 딱 맞게 제작된 사각형의 췌조각을 이어붙인 장신구를 머리부터 소매까지 장식하여 마치 중세시대의 갑옷을 연상시키며 이를 인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 이미지로 연출하였다. 드레스의 패턴은 빨간 비단뱀이 일률적으로 꼬여있는 듯한 모습의 리얼한 프린트로 극도로 복잡한 스타일의 퓨전을 보인다. 이는 여성스러운 디자인에 비인간적인 모습의 장신구, 드레스 디자인과는 전혀 별개인 프린트에 의한 복잡 다양한 스타일의 퓨전을 보인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맥시멀리즘적 퓨전성은 기존의 이미지를 차용한 형태간의 믹스로 오리엔탈리즘에 현대의 복식을 가미하거나, 여러 스타일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퓨전을 표현하였다. 이는 새로운 형태의 꾸뛰르 풍 드레스, 이미지간

의 믹스에 의한 비정형적 형태, 시대들 간의 혼합·스타일 간의 혼합으로 나타나는 복잡 다양한 소재,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벨벳·자카드 소재 등의 사용, 시대별·스타일별의 특징을 나타내는 색채, 복식사적 성향이 강한 전통적 무늬나 자수·인조보석 등의 디테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알렉산더 맥퀸의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클래식에 대한 존중은 작품에 고스란히 나타나 많은 작품에서 퓨전적 시도를 계속하여 어떠한 이미지도 다른 것과 섞일 수 있고 재탄생될 수 있다는 개발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4) 환상성

알렉산더 맥퀸의 기발한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틀에 박히지 않은 자유로운 상상력의 표현인 동시에 패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표현의 장으로 나타났다. 작품에 대한 영감을 거침없이 작품화시킴으로써 그에게 패션은 옷 이상의 표현이었고, 남과 다른 표현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였다. 그가 창작발상의 모티브로 주로 사용하는 자연주의적 조형성과 인공주의적 조형성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은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그림 13><sup>43)</sup>은 심플한 디자인의 베이지색 의상에 머리와 다리에 봉대를 감아 모델을 환자처럼 연출하고, 정교하게 만든 성모양의 구조물을 어깨에 부착하여 동화적이면서도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림 14><sup>44)</sup>는 그레이컬러 드레스의 가슴



<그림 13> 환상성  
Alexander McQueen  
2001 S/S



<그림 14> 환상성  
Alexander McQueen  
2008 S/S



<그림 15> 환상성  
Alexander McQueen  
2009 F/W



<그림 16> 환상성  
Alexander McQueen  
2007 F/W



<그림 17> 환상성  
Alexander McQueen  
2010 S/S

- <http://www.style.com> - <http://www.style.com> - <http://www.style.com> - <http://www.style.com> - <http://www.style.com>

부분에 새의 양 날개를 엮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의 드레스로 로맨틱한 스커트자락과는 이질적이면서도 마치 몸의 일부에 새의 날개가 피어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초현실적 이미지로 나타나 보는 이의 뇌리에 남아 판타지를 제공한다. <그림 15><sup>45)</sup> 역시 새의 형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손과 얼굴만 사람의 형상이고 나머지는 새의 형상과 같은 이미지로 반인 반조류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미지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동물의 형상을 한 작품은 상징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그림 16><sup>46)</sup>은 블랙컬러의 시스루 드레스에 글자가 새겨진 전신 타이즈를 매치하고 크리스털로 장식된 달의 형상이 마치 목을 관통한 것처럼 표현되어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동화적인 상상에서 오는 것으로 몽환적 판타지를 나타낸다. <그림 17><sup>47)</sup>은 알렉산더 맥퀸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작품으로 자연과 환경에 대한 끊임 없는 탐구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컬렉션으로 미래의 파괴된 생태계를 주제로 하여 미래의 인간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물체로 변하고, 인간은 다시 바다로 복귀할지 모른다는<sup>48)</sup> 테마로 진행되었다. 미래의 사이버틱한 이미지와 마치 바다 괴물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 같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여러 겹의 얇은 와이어와 시스루 소재의 블루펄 색상의 조형적인 상의에 물고기의 비늘을 연상케하는 촘촘하고 빼

곡한 화이트 펄 색상의 비즈로 장식된 팬츠가 미래 생명체를 나타내는듯하다. 이렇듯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적 환상성은 비정형적인 형태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이나 동물의 형태, 자연적·환상적인 이미지의 시스루 소재, 리얼리즘을 더하기 위한 퍼 소재, 동물의 가죽 패턴, 몽환적인 이미지의 화이트 펄 느낌의 색채, 일상의 사물이나 자연의 형상물·새의 날개와 같은 리얼한 디테일·판타지를 표현하는 크리스털 디테일로 초현실적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 5) 실험성

알렉산더 맥퀸은 여성혐오자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기존의 미의 가치관과는 차별화된 미의 영역을 개척하고 아름다움이라는 미의 기준을 특유의 새로운 감성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여성을 단순히 아름다운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만의 경험이나 상상에서 오는 감정들로 재탄생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제공하였다. 기존에 있는 인공 조형에 의하여 아이디어를 얻은 2009년 F/W 컬렉션은 버려진 타이어, 자동차 휠 등의 고물더미를 무대에 쌓아 놓고, 모델들의 헤어장식은 알루미늄 캔이나 테이프, 쓰레기 비닐 같은 재활용품으로 연출하였다. <그림 18><sup>49)</sup>은 비닐봉지처럼 보이는 원단으로 꾸뛰르풍 드레스를 표현하였으며, 드레스 위에 입혀진 코트는 전자기계를 포장할 때 쓰는 비닐처럼 보이는 페브릭으로 마치 비닐봉지를 감아놓은 것처럼 보이게 연출하



<그림 18> 실험성  
Alexander McQueen  
2009 F/W  
- <http://www.style.com>



<그림 19> 실험성  
Alexander McQueen  
2008 S/S  
- <http://www.style.com>



<그림 20> 실험성  
Alexander McQueen  
2005 S/S  
- <http://www.style.com>



<그림 21> 실험성  
Alexander McQueen  
2001 S/S  
- <http://www.style.com>

였다. 이는 기존의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 기피할 것 같은 재료들을 사용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와 기괴함을 양면적으로 보여주며, 문명의 발전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림 19><sup>50)</sup>는 핑크색 스네이크 패턴의 튜브탑 드레스로 옆구리 부분에서 철판 된 역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이

<표 3>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특성

		확대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실험성
조형적 표현 방법	표현 방법	· 의복이나 액세서리를 확대 · 전체 실루엣을 과장시키거나 디테일을 확대 · 평범한 디자인의 의상에 확대된 액세서리를 매치	· 의복의 한 디테일을 과장 · 반복적인 디테일의 증첩을 통한 강조 · 수공예적 정교한 소재표현 · 다채로운 컬러의 화려한 색채표현	· 매니쉬한 디자인의 코트와 민족적인 이미지를 매치 · 현대의 감각과 민족적 이미지의 반영 · 여러 스타일의 혼합으로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	· 현대적 이미지에 영동한 요소를 매치 ·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동물형상을 꾸뛰르 풍 의상과 매치 · 동물의 형상 자체를 의상으로 표현	· 이질적인 소재들의 결합 · 복식의 재료로는 부적합한 소재의 표현 · 정지한 것 같은 이미지를 리얼하게 표현
	형태	전체 실루엣을 과장시키거나 디테일을 확대 · 과장	장식을 강조하기위한 심플한 형태의 실루엣	민족적 의상을 차용한 형태, 꾸뛰르 풍의 드레스,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믹스한 형태	동물의 형상이나 상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형의 형태, 일상의 이미지나 사물의 미니어처 형태	꾸뛰르 풍의 의상과는 전혀 다른 소재의 결합을 통한 비정형적 형태
	소재	확대된 조형미를 부각하는 하드한 소재	시퀀장식 소재, 화려한 색채를 부각시키는 톨 소재, 조형미를 부각하기 위한 하드한 소재	전통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벨벳 소재, 민족적 이미지를 위한 자카드 소재	실제 동물처럼 보이기 위한 퍼 소재, 몽환적 판타지 이미지의 시스루소재	의상의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을법한 비닐처럼 보이는 소재, 와이어, 신체의 왜곡을 부각시키기 위한 하드한 소재, 퍼 소재
	색채	화이트나 블랙의 단색컬러,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	글리터링한 색채, 화려한 비비드 컬러, 아이템 강조를 위한 단색컬러	민족적 색채를 나타내기 위한 컬러(레드, 화이트 등)	리얼한 동물의 색채표현, 몽환적 이미지의 펠 느낌 색채	각 의상의 리얼리즘을 잘 표현하기 위한 색채
	디테일	자수나 실제 꽃처럼 보이는 형상의 디테일, 깃털장식	크고 작은 러플, 골드컬러 시퀀, 시퀀의 과다사용	자수, 자카드 디테일, 전통무늬로 조각된 쇠붙이	미니어처로 된 사물의 형상, 새의 날개형상	정지한 이미지의 새형상, 구조물 형태의 와이어
조형적 표현효과		· 움직임에 의하여 더욱 강조된 볼륨감과 확대성 부각 · 인체의 일반적인 곡선을 이탈한 새로운 시각 선사 · 신체의 왜곡된 형태감 강조	· 시퀀의 과다사용으로 극도의 장식미를 표현 · 확장된 러플의 표현으로 특유의 위트를 표현 · 클래식적인 표현을 위한 수공예적 디테일의 과다사용	· 현대적 이미지와 오리엔탈리즘을 표현 · 클래식한 아이템에 전위적인 연출요소를 적용하여 퓨전을 표현	· 일상의 동물을 의상과 매치하여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충격을 줌 · 의상자체가 동물의 형상이 되어 시각적 판타지 제공 · 의상에 상상의 이미지를 실현하여 동화적 상상을 가능하게 함	· 기술과 패션의 접목을 통한 새로운 사고의 확장 · 환경오염과 같은 주제를 유희적이면서도 개념적으로 표현
		· 디자이너의 의도를 증폭시키고 각인 시킴 ·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표현	· 장식에 대한 수공예적 표현으로 꾸뛰르에 대한 존중을 표현	· 전통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존중 · 어떤 개념이든 다른 개념과 섞일수 있고, 재탄생될수 있다는 디자인 개발 가능성 시사	· 동화적 상상력과 환상적 이미지로 초현실 세계 표현 · 이질적 느낌을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발견	· 이질적인 것의 조합을 통한 내적 불안감과 내면세계 암시 · 무거운 주제를 작품화함으로써 개념적 사고와 표현능력 고취

나와 실험적인 디자인을 보였다. <그림 20><sup>51)</sup>은 하드한 소재의 무사 이미지의 드레스로 모델들이 한명씩 걸어 나와 차례로 서면 천정의 조명장치를 이용하여 사각형의 체스 판을 만들고 결국엔 모델들의 이미지가 체스 판의 말을 형상화 한 것처럼 보이게 연출한 쇼이다. 이처럼 기상천외한 테마를 패션이미지로 승화하여 실험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21><sup>52)</sup>은 2001년 S/S 컬렉션 작품으로 무대를 정신병원으로 연출하고 유리로 벽을 만들어 관객들이 밖에서 무대 안을 지켜보는 형식으로 진행된 퍼포먼스 형식의 쇼이다. 모델들은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연기하며 걸어 나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나와 상식을 넘어서는 연출력으로 충격적 이미지를 선사하였다. 이 작품은 마치 독수리가 날아와 모델의 머리와 옷을 뜯고 있는 듯한 모습이 박제된 독수리 형상으로 인하여 정지된 화면처럼 보이며, 상의는 마치 독수리에게 뜯겨 해진 것 같이 연출하였고 깃털로 된 스커트부분까지 새의 연장선상의 이미지로 절묘하게 묘사되어 실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퍼포먼스 형식의 쇼에 나타난 작품은 미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열어주며 통념의 미를 부정하며 나타났다.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적 실험성은 꾸뛰르 풍의 형태나 신체의 왜곡을 통한 기괴한 형태, 다양한 모티브에서 오는 비정형적 형태, 소재의 개발로 인한 다양한 신소재, 파격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리얼한 동물의 색채, 혐오감과 충격적인 동물의 디테일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구조물의 결합을 선보이고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과 추의 미학을 연상하게 하였다. 이는 어떠한 것도 패션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는 영감의 원천을 제공받는 것과 같아 무한한 디자인의 개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표 3>은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적 특성을 조형적 표현방법, 조형적 표현효과, 내적 특성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 3.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내적 특성

알렉산더 맥퀸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것

에 대한 실험정신으로 수많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은 알렉산더 맥퀸만의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갔는데, 그는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패션쇼 연출 자체까지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유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는 생각, 경험, 사상, 상황들을 아이디어화 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그의 모든 작품은 그의 의식과 내면을 표현하는 도구로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를 '낭만적인 정신분열증 환자'<sup>53)</sup>라고 지칭하며 겉으로는 자극, 새로움, 파격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온전하지 않은 자아에 대한 두려움으로의 극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세속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였다. 또한 두려운 내적 자아에 대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실험적 시도를 추구함으로써 더 과장되고 극단적인 이미지를 추구하며 자유로움을 표현함으로써 상실되어있던 내면의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에게 있어 맥시멀리즘적 표현은 내면의 불안한 상황에 대한 치유의 개념으로 확장된 표현을 통하여 내적 의도를 증폭시키고 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표현인 것이었다. 그는 역사와 전통, 오리진리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존중을 통하여 꾸뛰르적 감각을 선보였으며, 보다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디자인을 선보이면서도 그 이면에는 전통과 자연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그의 아이덴티티를 지속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문제나 부정적인 일들도 특유의 위트와 대범함으로 작품화시켜 실험적이면서도 전위적인 디자인으로 선보였으며, 타고난 반항아적 기질과 무한한 창의성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조합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작품들로 남겨졌다.

## IV. 결론

큰 것이 아름답다는 심미적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맥시멀리즘은 창의적인 발상과 독창적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맥퀸의 중요한 표현방법으로 그의 작품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세계는 그의 내면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져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작품들을 과장된 양식으로 선보였다. 또한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의외성과 과감함으로 기존의 틀을 깨 맥시멀리즘적 작품들은 상상이상의 작품들로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획일화된 패션계에 맥시멀리즘을 통한 내면세계의 표출,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표현, 이미지의 구체화, 과감한 퍼포먼스 등을 통하여 일반적인 미를 탈피하고 패션을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켜 새로운 장르의 미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확대지향주의로 대두된 맥시멀리즘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적인 작품세계를 지니고 있는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을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맥시멀리즘적 표현영역의 다양성을 알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의 미를 제시하며, 표현영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결과, 알렉산더 맥퀸의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의 조형적 특성은 확대성, 장식성, 퓨전성, 환상성, 실험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확대성은 전체형태에서 실루엣을 과장되게 하거나 디테일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형적으로 거대하고 과장된 형태를 움직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더욱 부각시키며 무형의 물질까지도 시각적인 창조역할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장식성은 의복의 한 디테일을 장식 자체로 사용하거나, 장식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수공예적 표현으로 나타났으며, 과장되고 화려함을 강조하는 장식의 과장성을 정교하고 완벽한 테크닉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퓨전성은 서로 다른 이미지의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민족적인 이미지와 현대적 이미지의 조합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퓨전성은 새로운 시도를 통한 다원적인 미를 표현하며 의외성의 미를 창조하여 새로운 미의 영역을 제시한다. 넷째, 환상성은 비실재적이거나 디자이너의 상상력으로 극대화된 이미지를 표현하여 현실세계에서는 보지 못한 상상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이는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동화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다섯째, 실험성은 도전정신이 적극 반영된 이미지로 표현되어 비인간적인 현대 사회에 대한 디자이너의 내면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근원으로 충격적이거나 파격적인 모습으로 새로운 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질적이거나 기존의 개념을 뒤엎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나타났는데, 꾸뛰르풍의 의상과 전위적인 액세서리의 매치를 통한 충격적인 이미지를 표현한다던가 재활용품을 이용한 것 같은 이미지로 무거운 주제를 풍자적이고 유희적으로 표현함으로 무한한 표현능력을 보여주었다.

알렉산더 맥퀸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경향은 그의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분출하는 수단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또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표현된 작품들은 기존 복식과는 차별화된 그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다. 그의 편견 없는 열린 사고는 독특한 감각과 함께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천편일률적인 패션계에 기술과 문화, 패션을 접목시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극단의 아이디어 표현으로 주목받은 알렉산더 맥퀸은 맥시멀리즘 경향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사후에도 그가 남긴 자유로운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는 패션계에 무한한 가능성과 창작가능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맥퀸의 디자인 발상을 위해 주로 사용되어진 자연주의적 조형성, 민족주의적 조형성 등의 이미지에 대한 발상법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패션발전의 원천이 되고 무한한 영감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김선영 (2008),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작품의 그로테스크적 특성, *복식*, 58(8), p. 111.
- 2) 송정선, 박옥미 (2003), 현대 패션에 나타난 아방가르드(Avant-Garde)현상 -알렉산더 맥퀸의 컬렉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pp. 65-78.
- 권혜숙, 김윤진 (2008), 알렉산더 맥퀸 디자인에 나타난 아방가르드적 해체주의 특성, *패션비즈니스*, 12(2), pp. 100-116.
- 박은경 (2006), Alexander McQueen의 패션쇼에 나타난 패션과 메이크업의 해체주의적 표현연구, 대구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주연, 이효진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p. 300-313.
- 4) 김선영, *op. cit.*, pp. 106-119.
- 5) 네이버 지식사전, 자료검색일 2012. 4.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5285>
- 6) 김옥동 (1992), 미니멀리즘과 맥시멀리즘, *문화예술*, 150, p. 18.
- 7) 박은경, *op. cit.*, p. 3.
- 8) 정선화 (2008), 컬렉션과 내셔널브랜드제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패션 표현특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5.
- 9) 이희정, (2008), 2000년 이후 맥시멀리즘적 헤어스타일 연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5.
- 10) 뉴욕시 맨해튼 34번가에 자리잡은, 1931년에 완공된 초고층 빌딩으로, 102층에 높이는 약 381m인데, 1910~1920년대에 걸쳐 유행한 올위스 고딕 양식을 취하고 있다. 자료검색일 2012. 4. 2, <http://100.naver.com/100.nhn?docId=111657>
- 11) 권정숙 (2008),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0(6), pp. 841-843.
- 12) 김현진, 김혜경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메이크업디자인 연구 -2005 S/S~2011 F/W 국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3), pp. 108-112.
- 13) 김현진, 이은숙 (2011), 맥시멀리즘 특징을 이용한 패션디자인의 표현성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1), pp. 11-15.
- 14) 문지애 (2011), 현대 머리장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Maximalism)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5-55.
- 15) 박은경 (2008), 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한 연구 -200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58(3), pp. 13-15.
- 16) 변혜진 (2006), 21세기 맥시멀 룩(Maximal Look)의 조형미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8-43.
- 17) 이효진 (2003), 현대 복식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연구, *복식문화연구*, 11(2), pp. 279-290.
- 18) 이희정, *op. cit.*, pp. 55-67.
- 19) 성광숙 (2003), 복식 확대현상의 미적 가치,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10.
- 20) *Ibid.*, p. 13.
- 21) 변혜진, *op. cit.*, p. 29.
- 22) 네이버 지식사전, 자료검색일 2012. 4. 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641>
- 23) 이지현 (2011), 빅터 & 롤프(Victor & Rolf) 작품에 나타난 맥시멀리즘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1(4), p. 68.
- 24) *Ibid.*, p. 67.
- 25) 김현진, 김혜경, *op. cit.*, p. 111.
- 26) 김선영, *op. cit.*, p. 111.
- 27) 박은경, *op. cit.*, p. 15.
- 28) 김현미, 김숙현, 장애란 (2010), Alexander McQueen 컬렉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의 도상학적 해석, *복식*, 60(10), p. 119.
- 29) 김주연, 이효진 (2005), Alexander McQueen의 패션작품에 나타난 하이브리드(Hybrid) 경향 분석, *복식문화연구*, 13(2), p. 304.
- 30) 김선영, *op. cit.*, p. 111.
- 31) Alexander McQueen Fall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5, from <http://www.style.com>
- 32) Alexander McQueen Spring 2007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1, from <http://www.style.com>
- 33) Alexander McQueen Spring 2008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5, from <http://www.style.com>
- 34) Alexander McQueen Spring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35) Alexander McQueen Spring 2010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5, from <http://www.style.com>
- 36) Alexander McQueen Fall 2010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5, from <http://www.style.com>
- 37) Alexander McQueen Spring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 from <http://www.style.com>
- 38) Alexander McQueen Spring 2002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13, from <http://www.style.com>
- 39) Alexander McQueen Fall 2008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40) Alexander McQueen Fall 2001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13, from <http://www.style.com>
- 41) Alexander McQueen Fall 2003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42) Alexander McQueen Fall 2009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5, from <http://www.style.com>
- 43) Alexander McQueen Spring 2001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44) Alexander McQueen Spring 2008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13, from <http://www.style.com>
- 45) Alexander McQueen Fall 2009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13, from <http://www.style.com>
- 46) Alexander McQueen Fall 2007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3, from <http://www.style.com>



- 47) Alexander McQueen Spring 2010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3, from <http://www.style.com>
- 48) 김현미, 김숙현, 장애란, *op. cit.*, p. 129.
- 49) Alexander McQueen Fall 2009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50) Alexander McQueen Spring 2008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8, from <http://www.style.com>
- 51) Alexander McQueen Spring 2005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13, from <http://www.style.com>
- 52) Alexander McQueen Spring 2001 Ready-to-Wear Collection, Style Collection online, retrieved 2012, April 20, from <http://www.style.com>
- 53) 이명미, 양은진 (2009), 알렉산더 맥퀸 패션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의 해체주의적 표현 특성, *한국미용예술학회지*, 3(2), p. 8.